

융복합 시대의 사회적 자본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주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of Elderly in the Era of Convergence

Ju-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등의 융복합 시대의 사회적 자본이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02명이다. 분석결과,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가 없으며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규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활동공간 확장과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의 프로그램 개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우울, 노년기,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융복합 시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include networks, trust, norms, and participation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in the era of converg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2 senior citizens aged 65 and over who are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are follows. Depression was more severe in the elderly with lower level of education, no religion, and lower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s and norms. In this study, social network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depression. In order to alleviate depression in the elderly through this study, efforts to activate and expand the network of the entire society are requir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ctivity space of local community, develop programs for various convergence contents, and expand educ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in order to vitalize the network of the elderly.

Key Words : Social Capital, Depression, Elderly, Network, Trust, Norms, Participation, Era of Convergence

1. 서론

통계청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1],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15.7%로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의 편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융복합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년기의 삶의 질 또는

행복감 추구를 위한 과제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에 대응하는 복지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제도적·실천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 과정상 은퇴를 하고 사회적 활동과 관계망의 양과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2],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의

*교신저자 : 박주희(pjh@sungshin.ac.kr)

접수일 2021년 8월 3일 수정일 2021년 9월 22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6일

변화에 직면하여 우울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 우울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를 통해 살펴보면[3], 2018년 기준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환자의 4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의 우울증 발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과 관련 요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흔히 우울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기능을 악화시키거나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적응 수준을 떨어뜨리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우울은 삶 전반에 병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울은 개인들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른 정신병리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특히 노년기 우울의 문제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정서적 회복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문적 관심과 함께 실천적인 개입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노년기 우울에 관심을 둔 연구들을 살펴보면 [5,6],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주로 노인의 사회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과 노년기 우울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에 따른 우울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우울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으로 주목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중 최근 주목하는 요인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념의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학문 영역별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7]. Bourdieu는 사회자본을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근간으로, 해당 집단 구성원이 되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지원의 총체'로 정의 내렸고[8],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9]. 이외에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 정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7]. 또한 사회적 자본은 최근 전통적인 공동체인 가족, 친지, 이웃 등 상호관계성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소속감 또는 정체성, 결속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10]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서 볼 때, 노년기 사회적 자본 수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노인의 우울, 고립감, 치매발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노인의 우울과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예방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신뢰, 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1]. 즉, 공동체 정신이 강조된 사회적 자본은 노년기 우울을 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년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둔 Kim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은 노인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노인 자신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령화시대의 사회통합과 빈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 또한 노년기에는 경제적·정서적 자원의 공백이 예측되고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성과 활동영역도 확연히 줄어들어 사회적 자본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시기의 주요 대안적 자원으로서의 융복합 시대의 사회적 자본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13].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족구조의 축소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세대 간의 차별과 갈등 등은 노인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쉽지 않으며 이는 노년기 우울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우울을 낮추는 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14-18]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19,20]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상이한 결과들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둔 다수의 학자들[9,21,22]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범주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의 요인에 따라 이들 사회적 자본의 요인들이 노년기의 경험할 수 있는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융복합 시대의 노년기의 지지자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노년기 우울 예방의 관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노인복지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자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유의표집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각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교회, 성당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 전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 실시 후 신뢰도 검사 및 질문 문항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본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0부를 배부하여 최종 310부를 회수하였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Radloff에 의하여 개발된 CES-D를 Chon 등이 재구성하여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23]. CES-D 도구는 우울한 감정에 대한 7문항, 긍정적 정서에 대한 4문항, 대인관계에 대한 2문항, 신체화 증상에 대한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의 척도로 '극히 드물다'의 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의 4점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우울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낸다(Table1).

2.2.2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는 Kim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2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24]. 사회적 자본은 각각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의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더욱 높은 점수는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하위 영역별로 네트워크 Cronbach's α =.89, 신뢰 Cronbach's α =.87, 규범 Cronbach's α =.72, 참여는 Cronbach's α =.82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Table1).

2.2.3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 동거상태, 경제수준 등 7개의 변인이다.

2.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우울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통제변인,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 by Scale Variables

Variable		No. of items	Reliability
Independent variable	Network	6	.89
	Trust	7	.87
	Norm	7	.72
	Participation	6	.82
	All of Social Capitals	26	.92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20	.80
Control variable	Gender (Male=1, Female=0)	7	
	Age (Continuous variable)		
	Education level (1= Primary school graduate or below, 2= Secondary school graduate, 3= High school graduate, 4= College graduate of higher)		
	Religion (1=Yes, 0=None)		
	Spouse's residence status (1=Yes, 0=No)		
	Subjective health status (1 = Poor, 2 = Fair, 3 = Good)		
	Economic status (1 =Poor, 2 = Fair 3 = Good)		

2.4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남성노인이 33.1%이며 여성노인은 66.9%였다. 연령은 70대가 66.2%, 60대가 22.5%, 80대 이상은 11.3%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이 53.0%, 보통이 39.7%, 좋음이 7.0%의 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40.2%, 초졸이하가 24.0%, 중졸 22.0%, 대졸이상은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음 79.1%, 없음 20.9%였으며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84.1%, 독거가 14.6%의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보통 49.7%, 좋음 30.8%, 나쁨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사회적 자본, 우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우울을 분석한 결과<표3>, 전체 사회적 자본 수준은 3.15점(sd=.41)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규범 3.41(sd=.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뢰 3.39(sd=.65), 네트워크 3.31(sd=.36), 참여 2.50(sd=.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 자본 수준, 규범, 신뢰, 네트워크는 중앙값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수준은 중앙값 이하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은 2.26(sd=.86)으로 중앙값 2.5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2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00	33.1
	Female	202	66.9
Age	60s	68	22.5
	70s	200	66.2
	80s or older	34	11.3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161	53.0
	Fair	120	39.7
	Good	21	7.0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graduate or below	71	24.0
	Secondary school graduate	65	22.0
	High school graduate	119	40.2
	College graduate or higher	41	13.9
Religion	Yes	239	79.1
	No	63	20.9
Family structure	Couple	245	81.1
	One-person	44	14.6
	Couple with children	8	2.6
	Others	5	1.7
Economic status	Poor	59	19.5
	Fair	150	49.7
	Good	93	30.8

<Table 3> Level of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Variable	Means	Standard Deviation(SD)
Social capital	Network	.85
	Trust	.65
	Norm	.59
	Participation	.90
	All of social capitals	.67
Depression	2.26	.86

3.2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상관관계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의 네트워크($r=-.49, p<.01$), 신뢰($r=-.45, p<.01$), 규범($r=-.46, p<.01$), 참여($r=-.42, p<.01$)는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Table 4).

3.3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Table 5). 모델1

에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모델2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를 투입하였다. 모델1에서의 통제변수인을 투입한 결과 교육수준($\beta=-.32, p<.05$), '종교'($\beta=-.20, p<.01$), '배우자 동거 상태'($\beta=-.12, p<.05$), '경제수준'($\beta=-.14, p<.01$), 등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162로 이 변인들은 우울 변량의 16.2%를 설명하였다($F=7.96, p<.001$).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2에서 사회적 자본을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한 결과, '교육수준'($\beta=-.12, p<.05$), '종교'($\beta=-.16, p<.01$), 그리고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etwork	Trust	Norm	Participation	Depression
Network	1				
Trust	.65**	1			
Norm	.59**	.68**	1		
Participation	.46**	.59**	.59**	1	
Depression	-.49**	-.45**	-.46**	-.42**	1

*p<.05, **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Tolerance	VIF	B	β	Tolerance	VIF
Constant		3.25				5.09			
Control Variable	Gender (Male=1, Female=0)	.10	.05	.92	1.08	.07	.03	.90	1.10
	Age	.07	.04	.97	1.03	.04	.03	.96	1.04
	Subjective Health Status	-.14	-.10	.81	1.23	-.06	.04	.78	1.27
	Education level	-.28	-.32***	.94	1.05	-.11	-.12*	.70	1.41
	Religion (Yes=1, No=0)	-.44	-.20**	.89	1.12	-.35	-.16**	.77	1.29
	Spouse's residence status (Yes=1, No=0)	-.37	-.12*	.92	1.07	-.11	-.03	.76	1.31
	Economic status	-.17	-.14*	.87	1.14	.03	.02	.73	1.35
Social Capital	Network					-.35	-.34***	.47	2.12
	Trust					.04	.03	.35	2.85
	Norm					-.27	-.19**	.42	2.35
	Participation					-.09	-.09	.52	1.91
F		7.96***				14.21***			
adj R ²		.162				.330			

*p<.05, **p<.01, ***p<.001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beta = -.34, p < .001$), '규범'($\beta = -.19, p < .01$) 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330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16.8%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우울 변량의 33.0%를 설명하였다($F = 14.21, p < .001$). 즉,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가 없으며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규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유용성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 3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5~2월 5일까지 조사되었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 우울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회적 자본 수준, 규범, 신뢰, 네트워크는 중앙값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수준은 중앙값 이하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은 중앙값 보다는 다소 낮은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에 대한 주관적 평정에 기초해 나타난 결과이며 또한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표집 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노년기 우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회참여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15]에 근거해 볼 때 특히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큼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에서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 동거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수준을 투입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고, 배우자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 통제변인, 사회적 자본을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한 결과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가 없고,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규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을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5]. 종교가 노인의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인 결과는 종교가 없는 노인이 우울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Yeum 등의 연구와[26]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규범이 우울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27] 지지하였고, 규범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가 우울의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개개인들이 회복력과 탄력성을 갖고 질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노년기 전반의 사회적 관계의 축소의 문제는 이들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년기에는 대체로 사회활동에서 맺어진 공식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짙고, 자신에게 중요한 타자들을 잃기 쉽다[28]. 또한 노년기의 주거의 불안정과 잦은 이동 등과 같은 주거의 변화도 지역내 교류에 방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의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한 네트워크 기반 또한 취약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29].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입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이며,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30].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공식적 관계망과 사회제도, 정책까지 우리 사회 전체의 융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등의 공간 내에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년기에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 유용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은 오늘날 보편적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낮은 정보 활용 능력으로 인해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정보화 활용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이 개방적이고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편입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변화는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규모를 확보하여 비수도권 지역,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규모를 확보하여 연구결과 일반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기 우울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융복합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들로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KOSTAT, 2020 Elderly Statistics, KOSTAT, 2020.
- [2] N.Y.Kim, The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Depression in the Older Gener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ographic Accessibilit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0
- [3] HIRA, Disease Statistics of National Interest, HIRA, 2019.
- [4] H.S.Kwon,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ppression of Depression of In-Hom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16, pp.241-266, 2013.
- [5] J.M.Sung, "Effects of Family and Household's Economic Factors on Depress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Fixed-Effect Model."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4, No.2, pp.207-228, 2013.
- [6] C.K.Kim,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Elderly Living Alon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1, No.1, pp.941-955, 2021
- [7] H.B.Park, Social Capital, Jomyeong munhwas, Seoul, 2009.
- [8] P.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1986.
- [9] R.D.Putnam,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Vol2, No.1, pp.41-51, 2001.
- [10] S.C.Lew and M.H.Jang, "Social capital and Korean society," Journal of Social Development Studies, Vol.8, pp.87-125, 2002.
- [11] J.H.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Trajectories in Later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7, No.3, pp.181-201, 2015.
- [12] K.H.Kim, Social capital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s aged over 70 in Rural area,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5.
- [13] J.H.Kim, W.M.Kang and S.Y.Mu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Baby Boomers' Social Capital Recognition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Focusing on the Volunteering & Giving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Vol.40, No.3, pp.25-50, 2013.
- [14] H.Litwin, K.J.Stoeckel and E.Schwartz,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Europeans: are there age effects?," Eur J Ageing, Vol.12, No.4, pp.299-309, 2015.
- [15] S.D.Chung and M.H.Su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2, No.4, pp.249-272. 2012.
- [16] Y.G.Lee and S.I.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o the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20, No.2, pp.151-180, 2016.
- [17] S.Y.Park, "The Effec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Men and Wome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1, pp.154-190, 2018.
- [18] M.I.Kim, S.E.Kim and J.P.Kim, "Influenc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elf-Negle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Gende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60, pp.37-63, 2019.
- [19] J.H.Lee, R.B.Kim, B.J.Kim, J.H.Chun, and K.S.Park, "The Influence of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ol.36, No.2, pp.73-86, 2011.
- [20] H.O.Oh,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3, No.3, pp.535-547, 2014.

- [21] H.J.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Social Capital Traits, Vol.25, No.3, pp.25-42, 2009.
- [22] M.Y.Choi, H.K.Kwak, and H.S.Park, "The Effect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the Elderly's Subjective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lderly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66, pp.307-328, 2014.
- [23] K.K.Chon, S.J.Choi and B.C.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6, No.1, pp.59-76, 2001.
- [24] T.H.Kim, (The) influence of baby boomer retirees' social capital on successful aging, The Graduate School of Soong Sil Ph.D dissertation, 2015.
- [25] H.Y.Lee, J.T.Baek and Y.C.Cho,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for the Elderlies in Urban Area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569-581, 2016.
- [26] D.M.Yeum and J.S.Jeung, "Research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Life of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ing,"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0, No.4, pp.27-50, 2014.
- [27] D.H.Chung and E.J.Sim, "A Network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1, No.2, pp.549-570, 2019.
- [28] K.O.Seong, The Effects of Aging Anxiety and Ego Integrity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 mediating model of social capital,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6.
- [29] H.K.Shin and I.S.Jo, "A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26, No.3, pp.99-108, 2015.
- [30] S.H.Ah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 Doubl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and Social Dysfunc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20.

박 주 희(Ju-Hee Park)

[정회원]



- 1997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Dept.of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박사 (Ph.D.)
- 1994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Dept. of Family & Consumption Economics. 석사(M.S)
- 2010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가족과 일, 일·가정 양립 정책,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